

풍수 고전 교리의 전설화 및 민담화 양상*

윤흥기**

- I. 들어가면서
- II.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류 이야기의 요약
- III. 토론: 설화의 내용 분석
- IV. 마무리

<국문초록>

중국 진나라 괘박이 썼다고 전하는 풍수 고전, 『장경(葬經)』에는 딱딱하고 형이상학적인 풍수 교리 중 으뜸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부모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본체의 뼈(무덤에 묻힌 부모의 뼈)가 생기를 얻게 되면 지체(살아 있는 자손의 몸)도 그 생기(福)를 받게 되는 것이다(人受體於父母, 本骸得氣, 遺體受蔭)”(괘박, 『장경』, 『내편』 1)”라는 구절이 있다. 명당을 구해서 죽은 조상의 뼈를 묻기 위하여 지관과 함께 산천을 헤매던 재래 한국인의 행태는 이 『장경』의 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지관의 입장에서는 이 풍수 원리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풍수신앙을 퍼트려야 자기들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풍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민중이 좋아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변형한 것이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계통의 설화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이 계통의 설화 8편이 채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풍수 용어나 풍수 교리를 직접 거론함 없이 죽은 조상 해골의 안위(安危)가

* 이 글을 읽고 한글 맞춤법과 어색한 표현을 바로잡아 주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후
료 남윤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명예학술연구자(명예교수)

살아있는 자손의 안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흥미롭게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설화 8편을 (1) 해골이 명당에 방치된 이유, (2) 해골에 미치는 외부 영향을 시험한 방법, (3) 풍수 교리를 다루는 부분이 설화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설화 채집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근거하여 『장경』의 풍수교리 구절이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계통의 전설에서 어떠한 이본들(다른 전설이나 민담)로 발전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또 이 풍수 설화의 발원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영남지방 특히 경남지역이 그 발원지일 확률이 높으며, 설화 제목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설화가 원본 또는 원본에 가까운 것(version)이라 추정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내용이 가장 충실하고 다른 유의 설화와 혼합되지 않으며 이야기 전체가 죽은 조상 뼈의 안위가 살아있는 자손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면에만 집중하는 보다 순수한 풍수교리를 반영하는 전설이기 때문이다.

풍수 설화는 한국 설화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풍수신앙은 한국 전통 사회에 만연하며, 풍수 설화는 이러한 한국인의 풍수적 사고방식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와 멘탈리티를 이해하는 데는 풍수 설화가 매우 중요하다. 풍수설화는 한국 설화에서 가장 풍부한 자료(가장 많은 설화 수)를 제공하는 설화의 주제 중 하나이다.

핵심어: 영의정, 지관, 명당, 풍수, 설화, 전설, 『장경(葬經)』, 조상의 뼈, 눈병

1. 들어가면서

중국의 진나라 광박이 썼다고 전하는 『장경(葬經)』은 풍수 분야 고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 책에는 딱딱하고 형이상학적인 풍수 교리 중 으뜸이 되는 것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로 지관들이 길지(吉地)를 찾아다니는 이유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죽은 사람(무덤에 묻힌 사람)은 생기를 탄다.(葬者, 乘生氣也.)”, “사람들은 자기 몸을 부모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본체의 뼈(무덤에 묻힌 부모의 뼈)가 생기를 얻게 되면 지체(살아 있는 자손의 몸)도 그 음덕을(보호

를; 복을; 생기를) 받게 되는 것이다 (人受體於父母, 本骸得氣, 遺體受蔭) (곽박, 『장경』, 「내편」 1)”라는 구절이다.

위의 구절은 풍수술에 박식한 지관이라면 바로 이해했겠지만, 풍수설을 그냥 좋은 땅을 찾는 술수 정도로만 아는 일반 백성들은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풍수 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데다 한문을 읽을 줄 모르는 일반 민중에게는 위의 구절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에 불과했을 것이기에, 이 구절을 읽고 풍수설을 이해하여 풍수신앙을 지니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괘호 안의 내용이 의미를 좀 더 쉽게 풀어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곽박의 책에서는 이렇게 풀어 써주지도 않았다. 이 풍수 교리의 요점은 죽은 조상과 살아 있는 자손은 마치 나무의 동치와 가지의 관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뼈가 길지에 고여 있는 생기를 얻으면 이 생기가 자손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 뼈의 안위(安危: 어떤 종류의 땅에 어떤 상태로 묻혀 있는지)가 살아 있는 자손의 안위(安危: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풍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명제를 민중에게 이해시키기는 것이 아주 난제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풍수술을 믿고, 자기들에게 명당을 찾아 달라고 해야 수입도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 신분도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 민중에게 어떻게 이러한 풍수 교리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지관 자신들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았을 법도 하다. 필자의 생각에, 신문이나 라디오 또는 TV가 없던 옛날 시골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여가를 즐기며 세상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옛날이야기(주로 전설, 민담)를 구연하고 듣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오락거리(entertainment)이자 지식 습득의 중요한 기회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무덤 속의 죽은 조상이 생기를 타면 그 생기가 살아있는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이론을 아주 쉽게 아무런 풍수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설명해 놓은 옛날이야기가 있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민중에게 풍수 교리를 전파하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풍수 이야기가 풍수 사상이 널리 퍼져 있던 조선시대 민중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핵심적인 풍수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화로 녹여 낸 데에는 영리하고 지식이 있는 지관의 역할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II.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류 이야기의 요약

아마도 옛날이야기를 즐기는 유능한 지관에 의하여 탄생되었음직한 어느 풍수 설화가, 난해한 『장경』의 풍수 이론을 쉽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풍수 용어나 풍수 교리를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풍수 이론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풍수 설화는 상당히 많다. 이들 중에서 『장경』의 구절을 아주 쉽고 명료하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죽은 아버지 뼈의 안위가 살아 있는 자식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한 설화가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한국구비문학대계』 8-12, 305~311면)이야기이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옛날에 한 유명한 영남의 지관이 걸어서 산길로 서울 가까이까지 왔다. 마침 피곤하여 쉬어 가려고 앉은 곳이 대단한 명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패철을 꺼내서 그 자리를 점검해 보니 그 자리는 영의정이 나올 만한 명당인데 어떻게 이런 곳을 사람들이 지나치고 묘를 쓰지 않았을까 하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지관은 그곳에 망개 가지 덩굴 속에 사람의 해골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해골이 위치한 곳을 살펴보니 영의정이 나올 자리에 옮겨 좌향을 잡고 있었다.

지관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곳 명당의 질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솔잎을 한 줌 꺾어 해골의 왼쪽 눈자위에 쑤서 넣고 서울 시내로 내려갔다. 내려가 보니 시내 곳곳에 이미 방이 나붙었는데 영의정의 눈이 갑자기 아프니 누구든지 이를 고치는 사람에게는 후히 사례하겠다는 것이다. 지관은 영의정이 눈이 아프기 시작한 시각이 자기가 해골의 눈자위에 솔잎을 쑤서 넣은 시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관은 영의정 집으로 찾아가서 자신이 눈병의 대가인데 영의정의 아픈 눈을 고칠 수 있다고 소개한 뒤 영의정 보고 걱정 말라고 위로하고 나서, 산토끼 요리 등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여 먹었다. 며칠간 대접을 잘 받고 난 뒤 지관은 산에서 나는 어떤 풀로 만든 약이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 뒤 혼자서 산으로 가서 자기가 쑤서 넣은 솔잎을 해골에서 모두 빼내고 영의정 집으로 돌아오니 영의정의 눈이 바로 솔잎을 해골에서 빼낸 그 순간에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영의정은 지관의 의술이 자신의 눈을 낫게 했다고 좋아했다.

지관은 또다시 해골을 시험하기로 하고 해골이 있는 곳에 돌아가서 이번에는

오른쪽 눈에 솔잎을 한 줌 쑤서 넣고 돌아와 보니 영의정이 이번에는 오른쪽 눈이 아파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지관은 자신이 오른쪽 눈도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한 뒤 그다음 날 돌아가서 솔잎을 해골에서 모두 빼내니 대감의 오른쪽 눈도 금방 나았다.

그 뒤 영의정은 지관보고 자기 집에 좀 더 있으면서 친구가 되기를 간청하였는데, 이때 지관은 영의정의 아버지 묘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영의정은 잘 치장된 자신의 아버지 묘라고 알고 있는 곳을 지관에게 보여 주었는데 지관이 그 묘를 보더니 영의정이 나오기에 적합한 길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지관은 아직 살아 있는 영의정의 어머니는 누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물어보라고 했다.

영의정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그치며 묻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자신이 혼인한 뒤 며칠 되지 않아 자기 집안의 종이 자신을 후원에서 겁탈하였다고 털어놓았다. 그 뒤 종은 집에서 도망쳐 어디론가 사라졌고, 자신은 그 종의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알릴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의 남편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인 줄로만 알았으며 자신을 겁탈한 종은 도망가서 죽었다고 했다. 지관은 그가 바로 땅개 넝쿨 속에 있는 해골임을 알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영의정 모자는 지관과 상의하여 지관에게 자신의 진짜 아버지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지관은 영의정을 땅개 덩굴 속에 있는 해골 터로 인도하고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 해골이 영의정의 아버지 것인가를 시험했는지 이야기해주었다. 지관은 땅개 넝쿨 속에 있는 해골이 명당에 있으니 그대로 두고 흙으로만 덮어서 작은 봉분을 만들라고 일러주었다. 영의정의 아버지 묘로 알려진 잘 치장된 묘는 진짜 아버지 묘가 아니고 아무런 치장이 없는 작은 흙무덤이 진짜 영의정의 아버지 묘인 것이었다.¹⁾

위의 이야기에 ‘생기’와 같은 풍수 용어도 나오지 않고, 무덤에 묻힌 조상이 길지에 있는 생기를 타면 이것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딱딱하게 요약된 풍수 교리를 거론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조상의 해골에 불순 물질(솔잎)을 쑤서 넣으니 살아있는 아들의 눈이 아팠다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죽은 조상의 무덤 속 안위(安危)가 살아 있는 자손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풍수

1) 이 이야기는 경남 울주군 강동면 구유리에서 1984년 7월 22일 김이수 씨가 구연한 것을 『한국구비문학대계』 8-12, 305~311면에서 축약한 것이다.

이론을 풍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의 이야기는 누가 언제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전설과 비슷한 여러 편의 설화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분포해있는 것으로 보아 영의정이라는 직함이 가장 높은 벼슬이었고, 길지를 찾는 음택 풍수가 성행하던 조선조 후기에 생긴 설화가 아닌가 한다.²⁾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위의 전설은 대전통(Great Tradition, Elite Tradition)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풍수 경전의 이론 한 구절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불순물을 넣은 조상의 해골과 살아 있는 아들의 눈병이 연결되어 있다는 풍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통의 풍수 경전에 있는 교리를 옛날이야기 형식을 빌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풍수설을 설명하여 일반인들이 풍수설을 믿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풍수 경전의 풍수 이론 구절과 이를 알아듣기 쉬운 옛이야기로 변화된 전설과의 관계는 대전통의 무미건조하며 교조적인 이론을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전통(little tradition, folk tradition)의 설화 형식으로 변화하여 민중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계통의 전설을 분석하고 설명한 논문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신월균의 『풍수설화』 책에는 이야기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유의 전설 한 편인 “풍수설을 시험해 본 성지”³⁾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설화가 지관 이야기의 일부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⁴⁾ 이 글의 목적은 풍수 경전 교리가 설화의 한 형태인 전설로 먼저 변용되고 또 민담으로 발전이 되는 이유와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풍수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설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장경』에 있는 풍수 이론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따져보기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화에서 무덤 속 조상뼈의 안위는 아들에게 신비스럽게도 영향을 준다는 풍수 원리가 어떻게 암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 전설에는 딱딱하고 이해가 어려운 풍수 고전의 한 구절을 흥미로운 옛이야기로 풀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처럼 들려주기 위하여 술있을 한 줌 꺾어 해골에 쑤셔 넣으니 바로 살아 있는 아들의 눈이 아프게 된다는

2) 설화는 정확한 시기를 측정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의미가 적어서 설화 생성의 상대적 상한선(terminus ante quem)과 상대적 하한선(terminus post quem)을 사용한다.

3)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241~246면.

4)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42~3면·44면.

구체적인 예를 든 것만 나온다.

위에 인용한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전설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다른 다른 7편(version)의 설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다른 설화들은 이야기가 구전되면서 그 내용이나 표현이 약간씩 또는 상당히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들 설화의 공통점은 죽은 조상 뼈의 안위(安危)가 살아 있는 자손의 안위(安危)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설화 7편을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계통의 설화로 분류할 수 있다. 필자가 읽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오는 다른 version의 축약된 이야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② “풍수설을 시험해본 성지”

성지가 지리(풍수)를 공부한 뒤 풍수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서울 부근의 삼각산의 제일 잘생긴 곳(명당)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묻힌 사람의 뼈를 발견하였다. 성지가 보기에는 그 장소가 당대에 정승이 날 자리라서 그 자리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말뚝을 다듬어 해골의 왼쪽 눈에다가 박아 넣고 난 뒤 서울 시내로 내려왔다. 시내에는 김정승이 어제저녁부터 갑자기 왼쪽 눈이 아프니 이를 낮게 하는 의사에게는 후사하겠다는 방이 나붙어 있었다. 성지가 정승 집에 가서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저녁에 먹던 밥을 말려 가루를 만든 것을 주며 눈에 넣으면 하루 만에 나을 것이고, 그러나 오른쪽 눈이 또 아플 것이라 했다. 그동안 성지는 삼각산의 명당으로 가서 해골의 왼쪽 눈에서 말뚝을 빼 오른쪽 눈에 박고 다시 시내로 내려왔다. 김정승 집에서는 정승의 왼쪽 눈은 나았는데 오른쪽 눈이 아프다고 야단이어서 성지는 어제 주었던 밥 가루를 주면서 이번에는 오른쪽 눈에 넣으면 내일 두 눈이 다 말끔하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말뚝을 해골의 오른쪽 눈에서도 빼내니 두 눈이 다 나왔다.

정승의 눈이 다 나온 뒤 성지가 떠나오려고 하는데, 정승이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해서 싫다고 하니, 무슨 요구라도 하라고 해서, 정승 아버지의 산소를 보여 달라고 했다. 광주(廣州) 부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산소라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어서 정승이 날 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정승의 진짜 아버지 산소는 다른 곳에 있다고 알려 주었다.

밀실에서 정승의 어머니는 자신이 정승을 잉태할 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고백하였다. 그때 자기 남편은 고을살이로 보름에 한 번이나 집에 올까 해서 그 사건을 전연 몰랐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도둑이 담

을 넘어 도망가려 할 때 집안 중들이 도둑을 잡아 죽였다. 중을 시켜서 시체를 삼각산 밑에 버렸는데 밤이 물어다가 그 명당자리였다가 놔두었던 것이다.

대감의 진짜 아버지 묘를 성지가 발견했고, 대감은 그 묘를 잘 치장하였다. 이렇게 성지가 지리학(풍수학)을 공부한 뒤 풍수가 맞는지 시험해 보았다는 이야기이다.⁵⁾

③ “풍수 이야기(어머니의 비밀)”

박내생이라는 영남 사람이 산서(山書)를 10년이나 공부하고 영남의 명당을 다 알고 난 뒤 서울로 가기 위해 삼각산에 올라갔다. 만데이(산정)에서 줄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정승하는 자리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묘는 없고 보잘것없는 개똥이 널려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썩다 남은 박대구리(해골)가 하나 있었다. 이 해골이 자기가 풍수를 공부한 바에 의하면 틀림없이 현직 정승의 아버지 해골인데 이렇게 버려져 있으니 자기의 풍수술이 틀렸나 하고 해골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기가 쥔 오던 작대기(지팡이)를 해골의 눈에다 찔러 넣었다. 그 이튿날 아침 대궐에 일하러 나간 정승의 눈이 점심때가 지나자 붓고 아파서 모든 의원을 불러 치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박풍수가 정승의 눈을 고치겠다고 하고서는 진맥하는 체하며 손으로 눈을 문질러 주고 난 뒤 약을 가지고 와야겠다며 나와서는 박대구리에 꽂아놓은 작대기를 반쯤 빼내었다. 그리고는 염소 똥 같은 흙을 가지고 가서 정승보고 다려 먹으라고 주고 나니 눈 아픈 것이 상당히 나아졌다. 그러자 다른 의원들은 다들 도망갔다. 박지관은 2~3일 안에 눈이 다 나은 것이라고 장담하고 그 이튿날 가서 작대기를 해골에서 쑥 빼냈다. 그랬더니 정승의 눈이 금방 깨끗이 나아졌다.

지관은 의원 대접을 후하게 받았는데 그가 정승에게 말하길 내가 의술뿐 아니라 풍수술을 좀 배웠으니 부친의 묘를 좀 보여 달라고 했다. 정승이 왕릉같이 잘 꾸며진 무덤을 자기 아버지 묘라고 보여주니, 풍수는 그 못자리가 정승을 낼 수 있는 명당이 아니라고 일러주었다. 정승은 어머니를 찾아가 자기를 잉태할 때 아버지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했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어머니는 처음에 완강히 부인했으나 나중에 밤에 자기 집에 몰래 들어온 장돌뱅이한테 강간당했다는 것을 실토했다. 그 장돌뱅이는 그날 밤 달아나서 외롭고 추위 따듯한 산자락을 찾아 죽었는데 그곳이 명당이었다. 아무도 시체를 묻어주지 않아 해골이 나뉘고 개똥이 늘어진 지저분한 곳으로 남아 있었다.

5) 이 이야기는 경남 의령군 정곡면 증교리 장내에서 1982년 1월 31일에 한진식씨가 한 구연을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241~246면에서 축약한 것이다.

다음 날 풍수는 정승에게 자기는 의사가 아니고 풍수인데 이 해골에 작대기를 꽂아서 시험해 보니 이것이 정승의 아버지 해골인 것이 분명하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정승은 자기 아버지 묘를 왕릉같이 지었고, 정승 어머니의 비밀은 드러났다.⁶⁾

④ “명풍수”

옛날 한 지관이 금강산에서 (풍수)지리를 많이 공부하고 서울로 작대기(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서울 가까이 왔는데 보니 백골이 다 드러나 보이는 작고 허름한 묘가 하나 아주 좋은 명당자리에 있었다. ‘이상하다. 정승이 날 명당자리에 왜 이런 초라한 묘가 있냐’하고, 시험해 보기 위하여 작대기를 해골의 눈자위에다 꽂고 서울 시내로 내려오니 정승 집에서 정승의 눈이 갑자기 아파서 야단이었다. 그 지관은 정승의 눈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며 정승을 만나 부친의 묘가 어디 있는냐고 물었더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지관은 묘를 찾으면 정승의 눈이 낫는다고 하며 부친의 묘를 찾아주겠다고 했다. 지관이 그 묘로 찾아가 해골에서 작대기를 빼내었다. 정승은 그 순간부터 눈이 안 아프게 되었다. 지관은 묘소를 시험한 과정을 정승에게 설명하니 그 정승은 그 산소가 자신의 부친 산소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길로 선친 묘소를 수축하고, 지관을 잘 대접하였다.⁷⁾

⑤ “풍수 정성지”

긴 이야기로, 정성지가 명풍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즉 여우에게 홀려 노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길게 나온다. 그다음 소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의 콧등에 해당하는 지형에 묘를 써서 한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뒤 그는 금강산에 들어가 한 동굴에 물이 괴어 있는 곳에 금붕어가 한 마리 놓고 있어 그 눈에 가시를 박아 놓고 동네로 내려오니, 한 부잣집에서 주인이 눈이 아파서 야단이었다(아마 이곳에서 부친이 범에게 잡아 먹혔고, 금붕어는 부친의 생기를 상징하는 것라고 추측됨). 그래서 이 지관이 부자의 눈을 고쳐 준다고 하고 그 이튿날 아침 그 동굴로 가서 금붕어의 눈에서 가시를 빼내니 부자의 눈이 그 즉시 나았다. 지관은 후하게 대접받았다.⁸⁾

6) 이 이야기는 경남 거제군 상동리 용산에서 1979년 7월 28일에 윤동근씨가 한 구연을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8-1, 105~110면에서 축약한 것이다.

7) 이야기는 경남 진주시 망경북동에서 1980년 8월 11일에 임길표씨가 한 구연을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8-3, 36~37면에서 축약한 것이다.

8) 이 이야기는 경남 김해군 상동면 1982년 8월 13일에 서진철씨가 한 구연을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8-9, 917~922에서 축약한 것이다.

⑥ “뒷검쟁이, 풍수, 점쟁이의 선행”

옛날에 뒷검쟁이, 풍수, 점쟁이가 길을 가다가 오두막집에 가니까 부잣집을 찾아가라고 일러주었다. 부잣집 주인이 밥을 잘 차려주고 잘 방도 하나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른(아버지)이 집을 나가서 어디 갔는지 몰라도 집에 살림만 일고 잘 산다고 했다. 저녁을 먹은 뒤 밖에 나와 보니 앞집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좋은 무덤터를 찾아주려고 뒷산에 올라갔는데 가랑잎이 많이 쌓인 곳에 사람의 해골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부잣집 아버지의 해골인데 그것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남은 것이라서 아들이 부자가 된 것임을 알았다. 해골에 가락고를 푹 찢러 한쪽으로 구부려 놓고, 산을 내려가니, 가난한 사람은 초상을 치르고 부자는 눈이 아파서 어제 왔던 풍수와 점쟁이를 찾아 야단이었다. 노자를 많이 받아서 해골에 찢른 가락고 침을 빼고 아무 데나 묻어 놓으니 부자의 눈이 금방 나았다. 부잣집 주인이 자기 아버지를 좋은 자리에 묻기를 원해서 해골을 묻어주고 돈을 많이 받아서 가난한 이에게 주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이가 다들 잘살게 되고 뒷검쟁이, 풍수, 점쟁이는 자기들 갈 길을 갔다.⁹⁾

⑦ “유명한 지관”

옛날에 한 과부가 아들을 잘 교육시키고자 하였는데 하루는 탁발승이 와서 시주를 구하였다. 과부가 아들에게 쌀을 좀 스님께 주라고 하니, 쌀을 받지 않으면서 아이가 빨리 죽을 거라고 하면서 갔다. 그 과부는 중을 쫓아가서 어떻게 아이의 명을 길게 할 수 있느냐고 사정하였다. 그 중은 자기가 그 아이를 10년 동안 맡아서 절에서 키우면 된다고 했다. 중이 데리고 간 그 아이는 영리해서 스님 밑에서 배우기를 잘했고 얼마 지난 뒤 자기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집으로 가니, 어머니가 10년 동안 하기로 한 공부를 마치지 않고 돌아왔다고 야단치며 절로 돌려보냈다. 아이는 그 뒤에 10년 공부를 마치고 지관이 되어 스님과 함께 여행하였다.

하루는 그 스님이 아이에게 조선의 풍수를 이야기한 다음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지관은 서울 가까이까지 와 있었다. 그는 정승이 날 만한 명당을 그곳에서 발견하여 자기 지팡이를 그곳에 있는 해골의 오른쪽 눈자위에 푹 찢러 놓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서 정승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보니 정승이 자기가 해골에 지팡이를 꽂은 그 시각부터 오른쪽 눈이 아파 야단이었다.

그는 정승에게 자기가 눈을 완쾌시키지는 못하지만 눈이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눈이 아픈 것을 좀 낫게 한 뒤 그는 자기 말을 들으면 눈을 완쾌

9) 이 이야기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오성1동 여수동에서 1979년 4월 20일에 박삼선씨가 한 구연을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7-4, 228~229에서 축약한 것이다.

시킬 수 있다고 하고서 정승의 아버지 산소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승은 광나루에 있는 자기 아버지 묘소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다. 지관이 보니 이곳에서 정승이 나올 수 없고, 이 묘는 정승의 아버지 묘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지관은 정승보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여서 물어보았더니, 어머니는 고백하기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나던 옆집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두 집이 다 양반이었고 하여 두 아이가 혼인하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옆집 아이의 아버지가 죽고 집이 망하게 되어 어머니가 다른 양반 부잣집에 시집을 보냈다. 자기 어머니가 혼례 뒤에 친정에 오니 그 옆집 아이가 상사병에 걸려 죽어가며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옆집 아픈 아이를 밤에 문병 갔다가 그 이튿날 새벽까지 그 소년과 함께 잤고, 그 뒤에 정승을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몇 개월 뒤에 정승 어머니의 결혼한 남편이 죽었고, 아이를 해산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옆집 총각이 꿈에 나타나서 낳을 아이는 자기 아이라고, 자기의 시신이 양주군 어느 곳에 묻혀 있을 것이니 아이가 크면 자기 무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지관은 즉시 자기가 지팡이를 꽂아 놓은 그 해골이 정승의 친부 시신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오는 길에 아주 좋은 명당에 뒹굴고 있는 해골의 오른쪽 눈자위에 지팡이를 꽂고 왔다고 했다. 바로 그 해골이 정승의 진짜 아버지의 것이라고 일러 주고 그 자리가 아주 드물게 보이는 명당이니 시신을 그대로 흙으로 덮고 상석이나 비석은 일절 세우지 말라고 조언하였다.¹⁰⁾

⑧ “어떤 지관”

옛날에 침쟁이, 점쟁이 지관 셋이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기진 기술로 여비를 벌어서 서로 돕기로 약속하였다. 여행하는 동안 침쟁이와 점쟁이는 돈을 상당히 벌어서 잘 썼으나 지관은 돈을 못 번다고 그를 괘시하며 다른 데로 가라고 하였다. 어느 날 그들이 산길을 가다가 지관이 똥을 누려고 쭈그리고 앉아 보니 해골이 하나 자기 앞에 있었다. 그는 그 해골에 칠냉쿨을 쭈셔 넣었다. 그런 다음 동네로 내려와 한 부잣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들렀더니 그 집 주인이 갑자기 눈이 아파 죽을 지경이었다. 부잣집에서 많은 의원이나 무당을 불러 주인의 눈을 고치려 했으나 못 고쳤고, 셋이서 여행하는 사람 중 의원과 점쟁이가 고치려 했으나 못 고쳤다. 그러자 지관이 말하길 너희들은 이 눈병을 못 고쳐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나서 부잣집 주인 보고 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

10) 이 이야기는 충남 당진군 송산면 부곡리에서 1979년 11월 10일에 김봉한씨가 한 구원을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4-1, 260~274면에서 축약한 것이다.

지 물었다. 주인은 범이 자기 아버지를 물어 갔기 때문에 어디에서 잡아 먹혔는지 모른다고 했다.

지관은 내일 눈이 아픈 것을 고칠 테니 사례를 단단히 하라고 했다. 그리고서는 산에 가서 그 해골에서 칠닝쿨을 빼내었다. 그랬더니 부잣집 주인의 눈이 씻은 듯이 나왔다. 그러나 부잣집 주인은 그냥 저절로 나왔다면 지관에게 사례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관은 주인의 눈이 다시 아플 것이라고 한 뒤 산으로 가서 해골에 칠닝쿨을 다시 쑤서 넣었다. 그랬더니 부잣집 주인은 다시 눈이 아파 야단이 났다. 그제야 지관은 “내가 당신 아버지의 해골을 찾았소” 하고서는 칠닝쿨로 시험한 과정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러자 주인은 그 해골이 어떻게 범이 먹다 남은 자기 아버지 해골인지 아느냐고 했다. 그러자 부잣집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갔을 때 앞니가 두 개 빠졌었는데, 지금 해골도 앞니가 두 개 없다고 했다. 지관은 자기와 같은 신통력을 가진 지관만이 부잣집 아버지의 해골을 찾을 수 있으니 명당을 잡아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라고 조언하였다.

지관은 사례금을 많이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고, 다른 동료 여행자인 침쟁이와 짐쟁이는 빈털터리로 집에 갔다. 지관은 두 동료 여행자에게 자기는 지금 돈이 많지만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여행 중 약속을 어기고 자기를 팔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¹¹⁾

III. 토론: 설화의 내용 분석

위의 8편 설화들은 모두 장서(葬書)의 “人受體於父母, 本骸得氣, 遺體受廢 - 사람들은 몸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죽은 부모의 뼈가 (생)기를 얻으면 그 영향(음덕)을 살아 있는 자식이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재미있는 설화로 만든 이야기이다. 이 설화들은 그 내용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대체로 실제 있었던 일을 듣고 있다는 실감이 나게끔 구성된 전설 유에 속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설화들은 장서에 나오는 풍수 원리를 알기 쉽게, 풍수의 문외한이라도 풍수의 효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해골의 눈자위가 불편하게 되면 이는

11) 이 이야기는 충남 당진군 송산면 부곡리에서 1979년 11월 10일에 김봉한씨가 한 구원을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4-1, 275~279면에서 축약한 것이다.

살아 있는 아들의 눈자위도 불편하게 되어 눈병이 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설화 ⑤번과 ⑦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더 픽션(fiction)화한 민담(folktale) 수준의 것으로 한 단계 변천한 양상을 보여 주는 설화이다. 여기서 우리는 풍수 경전의 딱딱한 교리 구절이 전설이 되고 전설이 민담으로 변천하는 양상을 볼 수 있고 그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설화제목	해골이 그곳에 있는 이유	생기 효험을 시험한 방법	풍수 교리 부분의 설화 전체비중	설화 채집지
1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대갓집 종이 주인집 딸을 겁탈한 뒤 도망가서 죽은 곳	술요를 해골에 쑤서 넣음	전체가 해골의 상태와 아들의 눈병 관계를 다룸	경남 울주군
2	풍수설을 시험해 본 성지	도둑이 몰래 들어와 신부를 강간하고 도망가다 죽은 것을 범이 몰아다 놓은 곳	말뚝을 깎아 해골에 박음	전체가 해골의 상태와 아들의 눈병 관계를 다룸	경남 의령군
3	풍수 이야기 (어머니의 비밀)	장돌뱅이가 몰래 집에 와서 겁탈한 뒤 도망가서 죽은 곳	작대기를 해골에 꽂음	전체가 해골의 상태와 아들의 눈병 관계를 다룸	경남 거제군
4	명풍수	설명이 없음. 아버지의 묘가 어디 있는지 정승은 모름	작대기를 해골에 꽂음	전체가 해골의 상태와 아들의 눈병 관계를 다룸	경남 진주시
5	풍수 정성지	해골의 존재가 언급 안 됨(부친이 호식당한 곳?)	금붕어 눈에 가시를 꽂음	일부만이 해골의 상태와 아들의 눈병 관계를 다룸	경남 김해군
6	뒷검쟁이, 풍수, 점쟁이의 선행	범에게 그곳에서 잡아먹히고 남은 것	가락고 침을 해골에 찌름	일부만이 해골의 상태와 아들의 눈병 관계를 다룸	경북 성주군
7	유명한 지관	정승 어머니의 혼인 전 옛 연인이 죽어 묻힌곳	지팡이를 해골에 꽂음	일부만이 해골의 상태와 아들의 눈병 관계를 다룸	충남 당진군
8	어떤 지관	범이 주인의 아버지를 잡아먹고 해골을 남긴 곳	침낭쿨을 해골에 쑤서 넣음	일부만이 해골의 상태와 아들의 눈병 관계를 다룸	충남 당진군

이제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계통의 설화 8편을 서로 대조 대비

하여 설명해 보자.

1. 죽은 조상의 해골과 살아 있는 아들의 눈병(病)과의 관계

설화 8편 모두 하나같이 『장경』의 풍수 교리 구절을 인용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지만 죽은 조상의 해골의 안위가 살아있는 아들의 안위에 영향을 준다는 『장경』의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설명하여 일반 민중에게 전달한다. 풍수 전문용어가 일절 사용되지 않으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설화 형식을 빌려 죽은 아버지의 해골이 수난을 당하면(꼬챙이가 눈자위에 꽂히면) 살아 있는 아들의 눈이 아프게 된다는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서 『장경』의 풍수 이론을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 특기할 것은 이 생기의 연결은 오직 생부(生父)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 계통은 언급이 안 되었고, 비록 도둑이나 장돌뱅이 또는 집안 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피를 나눈 생부의 뼈라야 살아 있는 아들의 안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신을 길러주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믿었던 말하자면 양부(養父)의 뼈는 살아 있는 아들의 안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설화에 전연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인용한 8개의 설화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어디가 생부의 무덤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생부의 무덤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이야기들의 중요한 부분이다. 설화 ①, ③과 ⑦은 아들이 자신의 생부라고 알고 있는 잘 만든 무덤이 진짜 자기 아버지의 무덤이 아니고, 좋은 터에 내버려져 있는 해골이 자신의 생부의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된다. 설화 ②, ④, ⑥ 및 ⑧은 생부의 묘소가 어디인지 몰랐는데 명당에 노출되어 있는 해골의 안위(安危)를 시험하여 살아있는 아들의 생부임을 증명하는 경우이다. 설화 ⑤는 해골 대신에 물고기(죽은 조상의 생기가 응집된 것이 물고기인 것을 암시함)의 눈에 가시를 박는 것인데 이것 역시 죽은 자의 안위가 살아 있는 아들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다는 면을 잘 짚어내고 있다. 이 8개의 설화 중에서 설화 ⑤번(물고기)를 빼 7편의 경우 모두 생부의 무덤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명당에 노출된 해골을 지관이 우연히 발견하여 그 해골의 눈자위를 괴롭히니, 이 해골에 미친 외부의 영향이 곧바로 살아 있는 아들에게 전달되어 눈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친부의 것임을 확인한다. 이 이야기는 『장경』의 풍수 원리 “죽은 부모가 무덤에서 (생)기를 얻으면 그 영향 (음덕)을 살아 있는 자식이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부담 없이 재미나게 들을 수 있게 잘 풀어서 전달한다.

2. 해골이 명당에 있게 된 이유 분석

왜 해골이 명당에 나뒹굴고 있었는지를 8편의 설화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2편은 어머니를 강간(검탈)을 한 사람이 도망가서 죽은 곳이라고 한 설화 ①과 ③이다. 그런데 설화 ②는 도둑이 어머니를 강간한 뒤 도망가다 집안 종들에게 잡혀 죽었거나 범이 주검을 명당에다 몰어다 놓은 경우이다. 왜 죽었는지만을 따지면 3편의 설화가 정승의 어머니를 검탈(강간)한 뒤 죽은 것이고, 범에게 잡아먹힌 곳이거나 범이 주검을 몰어다 놓은 곳이 명당이란 이야기가 3편인데, 설화 ②, ⑥, ⑧이 이에 해당한다. 설화 ⑤의 물고기가 있는 동굴 이야기도 범에게 물려 죽은 조상이 물고기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4편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 이외에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이 1편-설화 ④이고, 어머니의 옛 연인이 죽은 곳이 명당이라는 것이 1편 -설화 ⑦이다.

엄격한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어머니의 혼외자식 임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이유가 어머니가 원치 않은 정사, 즉 불가항력적인 검탈(강간)을 외간 남자로부터 당했다는 것일 것이다. 이 이유가 어머니의 행실이 부정해서, 요사이 말로 남자친구를 여럿 마구 사귀다가 임신했다는 설명보다는 훨씬 덜 부끄러운 이유일 것이다.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규수가 행동이 부정해서 외간 남자와 혼외정사를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은 가문의 명예에 치명타였을 것이다. 그러나 검탈당해 아이를 낳게 되었다면 불가항력의 경우였다고 변명을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인 면에서 용서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혼외자식으로 밝혀진 설화 ①의 영의정은 어머니가 검탈당해서 낳은 아이로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범(야생동물)에게 물려 죽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범이 사람을 잡아먹은 곳은 명당이라고 하는 말(민음)이 설화 ⑧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 전통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 말은 아마 범에게 잡아 먹히는 불

행한 사건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이 보상 심리적인 위로의 말을 하는 데서부터 나왔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민간신앙에서 범은 산신령 또는 산신령의 사자(표징)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범에게 잡아 먹힌 사람의 해골이 발견된 곳이 명당이라는 설명은 한국의 민간풍습 상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3. 명당을 시험하는 방법

명당을 시험하는 방법은 이물질(이물질을) 해골의 눈자위에다 쑤서 넣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는 작대기(지팡이, 말뚝 포함)로, 4편에 (설화 ②, ③, ④, ⑦) 등장한다. 아마 나뭇가지나 작대기(지게 작대기 포함)가 그 당시 가장 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작대기는 다른 이물질 즉 가랑잎이나 풀을 한 줌 뜯어 넣는 것 보다 해골의 눈자위를 확실히 찔러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식물의 잎이나 넝쿨을 해골의 눈자위에 쑤서 넣는 것인데 솔잎(설화 ①)이 한 편 있고 칩녕쿨(설화 ⑧)이 한편 있다. 해골을 괴롭히는 데(공격하는 데) 있어, 솔잎은 바늘같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면이 있으니 해골을 아프게 한다는 상징성이 있고, 칩녕쿨은 산에 아주 흔하게 흩어져 있는 길고 굵은 넝쿨이라서 밧줄 같은 인상이 있어 이 또한 해골을 엮어매어 고통을 준다는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

나머지 두 편 중 설화 ④에서는 아들이 부모 산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인데 왜 부모의 해골이 그곳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연 없이 해골이 명당에 나와 있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다른 하나(설화 ⑤)는 해골 대신에 동굴에 사는 물고기가 등장하는데 가시를 물고기 눈에 찌르니 아들의 눈이 아프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해골에 이물질을 넣어서 시험하는 것, 즉 해골을 괴롭히는 것(공격하는 것)은 이 해골의 살아 있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해골이 있는 위치가 명당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설화에 의하면 지관이 이미 해골이 있는 곳이 명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승 아들이 나왔을 곳인데 정승이 왜 아버지 묘를 이렇게 돌보지 않고 있는지를 알려고 해골을 괴롭혀(이물질을 넣어서 공격하여) 이 해

골이 명당 터에서 받은 성가심이 아들에게 전달되어 어떤 눈병이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

4. 설화의 시작과 다른 계통의 설화와 결합 여부

설화의 시작은 8편이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설화 ①은 영남의 한 지관이 걸어서 서울로 가다가 서울 부근에서 명당에 나뉘는 해골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야기 전체가 명당에 노출된 해골과 살아 있는 사람의 눈병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설화 ②는 지관 성지가 풍수를 공부한 뒤 ‘이만하면 되었지’하고 서울로 향하던 중 명당에 있는 해골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야기 전체가 죽은 자의 해골과 살아 있는 사람의 눈병에 관한 것이다. 설화 ③은 박내생이라는 영남 사람이 산서(山書)를 10년이나 공부하고 영남의 명당을 다 알고 난 뒤 서울로 가기 위해 삼각산에 올라갔다가 정승하는 명당 자리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야기 전체가 죽은 아버지의 해골과 살아 있는 아들의 눈병에 관한 것이다. 설화 ④는 옛날 한 지관이 금강산에서 (풍수)지리를 많이 공부하고 서울 부근에서 백골이 드러나 보이는 허름한 묘가 명당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야기 전체가 죽은 자의 해골과 살아 있는 자의 눈병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설화 ⑤는 전반부에 긴 이야기로 정성지가 명풍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길게 구연되어 이 설화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뒤 그는 금강산에 들어가 한 동굴 물에 있는 금붕어 눈에 가시를 박아서 죽은 조상과 살아 있는 아들의 풍수 생기 교감을 다루는 부분은 이야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설화 ⑥은 짧게 간추려 구연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풍수, 의원 점쟁이 셋이 여행하며 내기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그 이야기의 일부분이 죽은 조상과 살아 있는 아들의 생기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설화 ⑦은 탁발을 온 중이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절에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길게 나온 다음, 죽은 아버지의 해골과 살아 있는 아들의 눈 통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설화의 일부를 이룬다. 설화 ⑧은 의원, 점쟁이, 지관, 세 사람이 여행하며 자기의 기술을 뽐내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지관 차례에 산에서 발견한 백골과 부자의 눈병이 연관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설화의 일부이다.

순수 풍수 이야기의 죽은 조상의 해골과 살아 있는 자손의 눈병을 다루는 설화는 4편으로서 설화 ①, ②, ③, ④는 모두 이야기 전체가 해골과 살아 있는 이의 눈병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계통의 이야기와 결합되어서 이야기의 일부만이 죽은 조상의 해골과 살아있는 자손의 눈병에 관한 것으로 나오는 설화는 2편으로서 “의원, 점쟁이, 지관이 함께 여행하는 이야기” 계통과 결합한 것으로 설화 ⑥과 ⑧이 이에 해당한다. 설화 ⑦은 이야기가 “탁발승이 아이를 절로 데려가서 풍수술을 가르치는 이야기” 유의 이야기와 결합된 것이다. 전반부는 이 유명한 지관이 어떻게 풍수 교육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구연하였고, 후반부는 죽은 조상의 해골과 살아있는 자손의 눈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8편의 설화 중에는 유일하게 옆집 총각과의 연애(love story) 이야기가 들어있다. 설화 ⑤는 죽은 조상의 안위와 살아있는 자손의 눈병에 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이야기이나 해골에 불순물을 틀어박아서 자손의 생기 감염을 시험하는 대신에 물고기의 눈을 가시로 찌르는 것으로 대치된 상당히 변형된 이야기이다.

5. 전설에서 민담으로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계통의 설화 8편은 대체로 다 전설로 분류할 수 있는 설화이지만 그중 2편 - 설화 ⑤ “풍수 정성지”와 설화 ⑦ “유명한 지관”은 민담적인 요소가 나머지 6편보다 큰 설화이다. 설화(folk narratives)는 대체로 신화(myth), 전설(legend) 및 민담(folktale) 등으로 나눈다. 여기에서 신화란 신(神)과 관계되는 옛날이야기들로서 신비스러운 창조 이야기가 여기에 속한다. 전설은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다루는 옛날 이야기라 할 수 있고, 민담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재미있는 상상에서 지어낸 이야기(fiction)에 기초하는 옛날이야기라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경우에 하나의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 중 어느 하나로 명확하게 분류해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나, 전설은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고, 민담인 경우에는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다. 그래서 전설을 역사에 비한다면, 민담은 소설 즉 허구(虛構)에 비할 수 있다.

이 논문에 인용한 설화 8편 중에서 설화 ①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

관” 이야기는 전설로 분류되기에 알맞다. 관직도 분명하게 최고 관직인 영의정이라고 못 박았고, 다른 부분도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전설은 다른 계통의 전설과 결합한 흔적이 없이 이야기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해골이 처한 상태가 살아있는 아들의 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설화 ⑤ “풍수 정성지”와 설화 ⑦ “유명한 지관”이야기는 다른 계통의 설화와 결합한 설화이면서 민담적인 요소가 풍부한 설화이다.

설화 ⑤ “풍수 정성지”는 전설보다는 민담에 훨씬 더 가까운 설화로서, 정성지가 명풍수가 되기 전 재 넘어 서당에 다닐 때 산고개에서 천년 묵은 여우가 아름다운 처녀로 둔갑해서 자신을 홀려서 놀게 된 이야기나 그 여우 앞에서 기절해서 풍수술을 신비롭게 한꺼번에 터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꾸며서 지어낸 이야기 즉 민담적이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가 동굴로 가서 금붕어의 눈에 가시를 박았다가 빼는 것도 『장경』의 조상의 뼈와 자손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다른 설화들보다는 한 층 더 상상의 세계로 청중을 끌고 가서 동굴의 물에서 놀고 있는 금붕어의 눈을 해골 대신에 다루고 있는 점 또한 다른 이야기들보다 더 민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화 ⑤는 실제 있을 수 없는 상상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더 민담적이기는 하나, 풍수 설화로서는 다른 7편의 이야기 보다는 훨씬 덜 풍수 설화적이다.

설화 ⑦ “유명한 지관” 이야기의 전반부는 상당한 부분이 다른 계통의 설화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이는 스님이 아이를 데리고 절에 가서 교육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해골에 지팡이를 꽂자 정승의 눈이 아픈 이야기로 장서의 풍수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화화한 것이다. 이 설화에서는 영의정이라고 꼬집어 말하지 않고 정승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벼슬을 말하며, 이 설화의 일부만이 조상의 해골 상태와 자손의 눈병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설화 7에는 풍수 원리를 설화한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것은 엄격한 유교 사회였던 전통 한국 사회에서 있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이다. 옆집 사는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간 자신을 그리워하여 상사병에 걸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랐다 하더라도, 갓 혼인한 여자가 혼자 밤에 그 친구 집으로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허구로서 지어낸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청중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시집간 여인이 혼인 전 사귀던 옆집 친구 집에 가서 새벽까지 잠 자리를 같이 하고 난 뒤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랑 이야기는 유교 사회에서는 참 스캔달러스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러한 사랑 이야기를 설화에 넣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교조적인 유교 사상으로부터 상당히 해방된 이야기로 보인다. 이것이 이 설화를 다른 설화와 차별되게 하는 점이며 청중의 흥미를 돋우는 것이 주된 목적인 민담에 가깝다고 보인다. 이렇게 보다 산만하고, 보다 전통적이지 않지만 보다 재미 있는, 그 당시로서는 있기 힘든 사랑 이야기가 들어 있는 설화는 전설이 민담으로 발전한 경우라고 보인다.

설화 ⑤ “풍수 정성지”와 설화 ⑦ “유명한 지관”은 전설의 단계를 넘어 민담으로 발전한 경우로 보이며, 설화 ⑤는 다른 풍수 설화와 달리 그 내용이 상당히 변형되어 신비스러움을 부각한 변형된 풍수 민담으로 볼 수 있다.

6. 내용 분석의 종합

설화 내용 분석을 종합해 보면, 8편의 설화 모두 죽은 아버지가 명당에 묻힌 덕택에 그 생기를 받아서 아들이 정승이나 부자로 잘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장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뼈가 어떤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이 곧바로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풍수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다.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계통의 설화 8편을 훑어볼 때, 4편의 설화는 죽은 조상의 해골과 살아 있는 자손의 눈병을 다루는 단독 주제 풍수 설화이고, 다른 세 편의 설화는 다른 계통의 설화와 결합되어 있으며, 한 편의 설화는 변형되어 해골 대신에 물고기의 눈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죽은 조상의 해골과 살아 있는 자손의 눈병을 다루는 단독 주제 설화가 보다 원형이고 보다 오래된 설화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해골이 명당에 내버려져 있는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영의정의 어머니

가 겁탈당했거나 옛 연인과 혼외정사로 임신을 했다는 것인데 그 어머니를 임신하게끔 한 사람이 외롭고 불쌍하게 죽은 곳이 명당이었고, 낳은 아들은 그 명당의 생기를 받아 출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혼외정사나 혼외정사로 낳은 아이를 받아들이고 감싸는 전근대 한국 사회의 인류 보편적인 태도가 엿보인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설화는 고관대작으로 출세한 자나 양반이라고 으스대는 자들 중에 실제로 양반이 될 수 없는 혈통의 사람들도 있다고 고발하는 면도 있다고 보인다. 옛날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터놓고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지닌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점,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들추어내어 그들을 놀리는 면도 있고(ridiculing the people who have been successful), 사회에는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잘나가는 것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부끄럽고 알리기 싫은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설화들이라고 생각한다.

7. 토론: 설화의 발원지 추적

위 8편의 설화 중 5편이 경상남도에서 채록된 것이고, 한 편은 같은 영남지방인 경북에서 채록되었으며, 두 편은 충청남도에서 채록되었다. 우선 분석을 위하여 가장 많은 이야기 편수가 경남에서 나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북에서 채록되었지만 같은 영남지방이다. 이 설화들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들로서 죽은 조상의 기(해골의 상태)가 바로 살아 있는 자손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오직 설화 ⑤가 해골 대신에 금붕어의 눈을 다루고 있으나 이 또한 무덤 속 조상의 눈 상태가 살아있는 자손(정승)의 눈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머지 두 편은 영남지방이 아닌 충남 지방에서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영남지방이 이야기의 발원지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지방 즉 호남지방인 전라남북도나 관동지방인 강원도 및 기호지방인 경기도-서울에서는 위에 열거한 8편과 비슷한 설화가 채집되지 않았다. 문화지리학자 Carl O. Sauer는 그의 저서 『농업의 기원과 전파(Agricultural Origin and Dispersal)』에서 원시 작물과 유전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야생종이 많은 곳이 그 작물이 처음으로 재배된 곳 즉 그 농작물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라고 하였다.¹²⁾ 그래서 우리는 우선 영남지방 특히 경상남도가 이 이야기의 발생지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이야기와 그 설화와 가깝게 연결된 설화들이 경남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의정이 나오는 설화는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영의정 제도가 생기기 이전으로는 거슬러 갈 수 없으며 음택 풍수가 크게 유행했던 조선시대 후기에 생겨난 설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IV. 마무리

땅에 묻힌 조상의 안위(安危)가 살아 있는 자손의 안위로 직결된다는 풍수교리가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계통의 설화 8편에 해골의 안위와 자손의 눈병 관계를 예로 들어 비유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전문적인 풍수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흥미를 유발하는 예를 들어서 명당에 있는 죽은 아버지 해골의 눈자위를 찌르니 바로 살아있는 아들의 눈이 아프다는 설화 줄거리를 사용하여, 본체의 뼈(무덤에 묻힌 부모의 뼈)와 살아 있는 자손의 몸이 서로 생기로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장경』의 고전 풍수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 인용된 8편의 설화 중에서 설화 ①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이 원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설화로 보인다. 죽은 아버지 해골의 안위(安危)가 살아 있는 아들의 안위(安危: 눈병)와 직결되어 있다는 풍수 교리를 설명하는 것에 이 설화의 전체 내용이 이 풍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다른 계통의 이야기와 결합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설화들은 의원, 점쟁이 풍수 세 명의 여행 이야기나 탁발승이 어린 아들을 절에 데려가서 교육시키는 이야기 계통의 설화와 결합되어 있다.

설화 8편 중에서 설화 ⑤ “풍수 정성지”와 설화 ⑦ “유명한 지관”은 전설에서 민담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이며 설화 ⑤는 전형적인 민담에 가깝도

12) Sauer, Carl O., *Agricultural Origins and Dispersal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9[1952], pp.19~39.

록 변형된 풍수 설화이고, 설화 ⑦은 기본적으로 전설이지만 남녀 간의 연애 이야기를 포함한 민담적인 요소가 풍부한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영남지방이 이 설화류의 발원지 또는 발원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설화 ① “영의정이 날 명당을 안 지관” 전설은 이러한 설화류의 원형이거나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 (version)이며 영남에서 서울로 가는 지관 이야기는 영남에서 생겨난 이야기로 보이며 다른 이야기들(금강산에서 서울로 가는 등)은 영남에서 생겨난 이야기가 약간 변형(editing)된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에서 채집된 유일하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각편(version)은 다른 설화들보다 유교 전통을 좀 더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영남에서 채집된 설화 편들보다 더 민담화된 이야기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자료

- 『한국구비문학대계』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7-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구비문학대계』 8-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郭璞, 『葬經』內篇, 武漢: 崇文書局, 1875.

2. 단행본

-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Sauer, Carl O., *Agricultural Origins and Dispersal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9[1952].

3. 논문

- 윤흥기, 『한국 풍수설화 속 인간과 자연의 특별한 관계』, 『국문학 연구』 40, 국문학회, 2019, 93~112면.
Hong-key Yoon (윤흥기), “An Analysis of Korean Geomancy Tales”(한국풍수설화의 분석), *Asian Folklore Studies*, Vol. 34 No.1, 1975, pp. 21~34.
_____, “Ideas Relating to Humanity-Nature Relationships in Korean Folk Narratives Reflecting Geomantic Values”(한국설화의 풍수 지리를 반영하는 인간과 자연관계 사상), *Landscape Research*, vol. 46, no. 6, 2021, pp.782~792.

Witnessing the Evolution of a Geomancy Tale from a Classic Geomancy Doctrine to a Popular Folktale

Yoon, Hong-key

A classic in geomancy (known as “p’ungsu” in Korean and “fengshui” in Chinese) is Guo Pu’s *Zangjing* (葬經) or the *Book of Burial*. The book contains an important discussion on the nature of vital energy (saenggi: 生氣) and why it can be mysteriously transmitted to a living descendant. It argues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deceased ancestors and their living descendants are like those between the tree branches and the tree trunk. Thus, the power of vital energy can be delivered from the ancestor in a gravesite to their living descendants. The explanation of vital energy in *Zangjing* is vague and metaphysical and is therefore difficult for a commoner to comprehend. That is perhaps why a clever geomancer might have produced a folk narrative on the subject in order to enlighten commoners about the transmission of vital energy from an ancestral grave to a living descendant. The legend of “the geomancer who recognised the auspicious site that will produce a prime minister” expounded the geomantic principle of vital energy without using any technical geomantic terms or jargons. A son in the legend became a prime minister, thanks to his biological father’s bones being placed in an auspicious grave site. However, when an eye socket of his father’s skull was attacked by a stick or a bundle of pine leaves, the son (the incumbent prime minister) suffered terrible pain in his eyes. When those foreign materials were removed from the skull, the pain in the eyes of the prime minister subsided. The legend effectively illustrated in an entertaining manner on how the deceased father’s bones affected the living son’s wellbeing.

Out of the eight different versions of folk narratives dealing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ceased father’s grave and living son, seven versions did not contain a love story in them and simply focused on how the wellbeing of the father’s skull

influenced the wellbeing of the living son. However, one folk narrative from Ch'ungch'ōng Province included a love story in it. I classify this legend with a love story as an evolution from a legend to a folktale. Thus, one can witness an evolution of a folk narrative from a solemn geomantic theory in *Zangjing* to a legend and then to a folktale by incorporating a love story. Korean folk narratives dealings with geomantic topics are numerous in numbers and provide rich resources for the study of Korean culture, history and traditional society.

Keywords: Yōngŭijōng-Prime Minister, Geomancer, Auspicious Site, Geomancy, Folk Narratives, Legends, *Zangjing*, The Bones of Ancestors, Eye Pain

접수일자: 2022. 9. 30. 심사기간: 2022. 10. 1.~2022. 11. 10. 계재결정: 2022. 11. 10.
